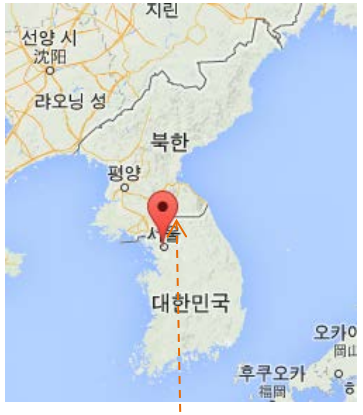
라온아띠 11기 필리핀 팡가시난팀 4월 보고서

김태수 | 김솔이 | 백수민 | 김민재 | 정수진
TONY SOLE MIN JOSHUA DAISY

RaonAtti

4월 한 달 간 팀팡(Team of Pangasinan)의 발자취



Jimmy & Alen
In SEOUL
3.31~4.7

RaonAtti

DUMP SITE

첫 번째 이야기. 덤프 사이트

1. RaonAtti Dump Site Project

Dumpsite에서는 3월부터 진행해오던 위생교육, 응급치료, 아띠끌라쎄를 계속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꾸준히 위생교육, 응급치료를 진행해서 인지 Dumpsite의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심각한 상처나, 치료해야 할 주민들의 수가 꾸준히 줄어가고 있다.
또한 아띠클라쎄에서는 art class를 기반으로 기초영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알파벳과 알파벳과 관련된 단어를 미술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흥미를 주려고 노력 중이다. 출석부를 만들어 아이들의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업 후 비스켓과 물을 제공하여 간단한 feeding program을 운영 중이다. 5월 중에 한 차례 Dumpsite주민들을 대상으로 Sandwich feeding을 계획하고 있다.

위생교육 - 손 씻기

First aid - 상처치료

아띠 클라쎄 - 기초영어 교실

RaonAtti

1. RaonAtti Dump Site Project

Dumpsite Project와 관련하여 수업공간 마련을 위한 미팅이 WMD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으며, Dagupan City Mayor, Belen Fernandez를 만나 RaonAtti project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Dumpsite의 교육공간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선은 수업을 진행하던 오두막에서 돗자리를 깔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소 사용에 대한 승인이 내려진다면 dumpsite에 버려진 자원들을 재활용하여 고무매트를 만들고 오두막을 보수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RaonAtti

HEY, 팡팀!

4월의 DUMPSITE. 어땠어?

TONY 태수

4월의 Dump Site는 유난히도 뜨거웠던 것 같아. 더운 날씨 속에 계속된 화재. 그리고 연기. 그나마 화재 또는 그곳에서의 생활 때문에 생긴 아이들의 상처들이 우리의 상처치료로 인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뜨거움을 달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곧 잘 Kamay(손)부터 Paa(발)까지 스스로 Washing을 잘 하더라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진 못하지만 스스로 한다는 것에 기특한 나머지 우리의 손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머리로 옮겨가며 magaling(잘했어)을 외치고 있었지. 그리고 atti klase. 우리는 기본적인 알파벳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수업을 했어. 수업이라고 하기가 사실 조금은 민망하지만 처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지. 교육을 통해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 어떤 하루는 아이들이 3명밖에 없었어. 그러나 그 때 Alen이 한 말이 기억이 나네.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우리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많고 적음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수업을 마무리하며 Feeding Program인 비스킷과 물을 주며 우리의 활동을 마치는데. 그것을 받을 때 Salamat po(감사합니다)를 말하게끔 우리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쳐주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덤프사이트 활동이지만 5월엔 더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SOLE 솔이

Dumpsite를 생각하면 Jobit이라는 이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 Dumpsite에 갈 때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악동이야. 처음에 봤을 때는 Alen에게 빨리 병원에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친구였는데, 어쩜 갈 때마다 더 밝아진 모습에 그렇게 말했던 내가 부끄럽게 느껴져. 아이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 마다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어 Dumpsite에 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
아, Y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우리 팀이 지난 10기 팀에 비해 Dumpsite 주민들과 덜 친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어쩌면 우리도 Dumpsite에서 주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곤 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지 모르겠어.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feedback을 받으니 기운이 쏙 빠졌어.

RaonAtti

HEY, 팡팀!

4월의 DUMPSITE, 어땠어?

쓰레기의 역한 냄새와 Blue house(Bio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공정을 하는 건물)에서 나오는 역한 냄새, 설상가상으로 3월 큰 화재로 비닐 쓰레기들이 타고 온갖 쓰레기들이 타 들어 가면서 헛구역질을 했었던 지난 달.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네.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dumpsite를 들어가고 있고, 유난히 손 위생에 신경을 쓰던 내가 물티슈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가 되었어. 처음 왔을 때, 유난히 Dumpsite활동을 힘들어 했던 나로서는 너무나 큰 발전이었고, 처음에는 우리가 씻겨줘야 하는 아이들과는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오면 스스로 와서 비누를 짜서 팔, 다리, 얼굴을 씻는 아이들을 보며, 그리고 쑥스러워서 피하던 아이들도 씻으면서 점점 더 많아 지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해.

말이 통하지 않고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순수함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해서 일까?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유난히 보이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서 수업에 방해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된다 싶었는데 요즘 나는 고민이 생겼어. Dumpsite에서 손을 씻고 다같이 아띠클라세를 가서 보면 유난히 동떨어져 있는 남매가 있고, 유심히 살펴본 결과,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더라고… 공부하고 있을 때 와서 때리거나 공부하는 종이에 일부러 찢으려 하거나 낙서를 하더라. 그걸 보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 아이들이 치고 박고 장난치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이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되고, 내가 따갈로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중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야. 무튼, 모든 것이 순조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어. ☺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친근해 진걸까?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꾸야, 아떼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고 우릴 보면 이제 낯설어 하기는커녕 안기고 달려드는 아이들.
특히 쥬빗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놀라워했지.
3월 한 달 동안 쥬빗은 우리가 많이 신경썼던 아이들 중 한명이었고, 그 때 쥬빗은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의 쥬빗은 우리에게 장난도 치고 안아달라고 떼도 쓰고… 조금 감당하긴 어렵지만(하하) 그만큼 우리가 편해졌다는 이야기겠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Atti Klase는 생각보다 집중시키기 어려웠던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말을 듣지않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모습도 보면서 조금 아이들이 밉기도 했었어. 그러면서도 또 얘들이랑 대화하고 순수하게 웃는 모습보면 너무 이쁘고… 4월 한 달의 덤프사이트에서 느낀 나의 감정은 애증(?) 이라고 해야 할까?
4월 중순부터 앓아서 두 세 번 덤프사이트를 못 갔을 때 따라가고 싶어서 알렌한테 이야기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을 때 느꼈던 그 섭섭하고 아쉬움 마음이 내가 얼마나 덤프사이트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려준 것 같아.

RaonAtti

HEY, 팡팀!

4월의 DUMPSITE. 어땠어?

DAISY 수진

솔직히 4월 한달 간 Dumpsite에서의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신 없음' 그 자체였던 것 같아. 격동(?)의 지난 3월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활동(상처치료, 교육활동)들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잡히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종종 헛갈릴 때 있어.
Atti classe시간, 뛰어 다니느라 바쁜 몇몇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제하느라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날이면 정말 당장이라도 수업을 때려 치고 Y로 돌아가고 싶다니깐.ㅠㅠ
한번은 한 아이가 수업 시간 내내 나무에 매달리고, 소리를 지르며 말썽을 부리는 거야. 그 순간너무 화가 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에 나도 같이 나무에 매달려 그 아이와 함께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 ㅋㅋㅋㅋㅋ
우리가 항상 나눔 시간에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조금은 산만하고 정신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의 당연한 특성이라는 것. 머리로는 200% 이해 되지만, 막상 수업 시간에 마주 하게 되는 풍경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해.
산만한 몇몇 아이들을 잘 통제하고, 모든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하도록 해서 그럴듯한 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서도
'아 이것 또한 우리네 방식이지. 굳이 이곳까지 와서 한국식 스파르타 교육을 할 필욘 없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Atticlasse가 이루어 지고 있는 교육공간이 애초에 수업 장소로 적절하지 않기도 하고… 힝 아직도 모르겠다 @.@

하.지.만! 이렇게 여러 고민들을 마음 속에 안고 있으면서도, 3월보다는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이곳에서의 웃음이 늘어나고 있고, 로즈밍이나 쥬빗이 내게 매달리고 안길때면 스스럼없이 내 등과 팔을 내어주는 나의 모습이 내가 Dumpsite에 자연스레 젖어 들고 있다는 증거겠지☺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상처 치료 또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어. 처음엔 이곳에서의 상처치료가 별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 했었는데. 봐봐! 많은 아이들의 상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 때 화상 입었던 아이 기억나? 완전히 새살이 돋았더라.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 했어.
이제 상처치료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건교육도 한번 해보고 싶어!

RaonAtti

PUGARO

두 번째 이야기. 푸가로

2. Pugaro Summer Program

4월부터 Pugaro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 Program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프로그램 희망 참가자, 선호 프로그램 등을 설문조사 하였고, 2주 차부터 축구, 음악교실, 미술교실, 과학교실, 체육교실을 운영하였다. 축구교실의 경우 15명의 학생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음악, 미술교실은 20명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축구교실에서는 축구에 대한 이해, 규칙 이해, 기본기 다지기, 실전 시합의 단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음악교실에서는 Old Pop Songs을, 미술교실에서는 그리기, 만들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실험교실, 기초영어교실(academic lessons)의 경우 아이들의 참여도가 적어 폐강위기에 놓였으나 5월부터 수업수준을 낮추어 놀이형식으로 academic lessons 을 운영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 house to house

Building relationship program

Summer school program 시작

RaonAtti

HEY, 팡팀!

4월의 PUGARO, 어땠어?

TONY 태수

4월 7일 우리가 드디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그러나 이게 뭔 일?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는 것. 오히려 더 잘되었지. 우리는 그날 하우스마다 Survey를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어. 오히려 이게 더 크게 재밌는 일이었지. 면접날이 떠오르더군. 500만원이 있다면 학교를 짓겠니? 병원을 짓겠니? 자신있게 학교를 외쳤던 나! 그러나 먼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면접관.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먼저 조사하기 위해 Survey를 한 거였지. 물론 나의 축구프로그램은 이미 짜여있는 각본이었지만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Survey를 하니까 많은 아이들은 만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큰 틀은 잡히더라고. 그렇게 한 달의 Summer Program을 진행한 지금. 4월의 많은 활동들로 인해 Pugaro에 많이 가진 못했지만 나름 역시나 감각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특히 필리핀은 축구가 생소한 운동이라서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사람은 역시 한 가지 이상씩 분명 잘 하는 것이 있더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건 재미있어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 다음 달은 우리가 만든 대나무골대를 양쪽에 놓고 축구게임을 실컷 할 예정이야.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지금의 이 심정. Volleyball과 Basketball만 좋아하지 말고 Soccer도 사랑해줘라!

SOLE 솔이

나는 Academic Lessons을 맡았지. 그전부터 딱히 어떤 클래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팀원들이 프로그램을 고른 후 남은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어. 그런데 아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인건지, 내가 열정적이지 않으니 아이들도 내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어. 어쩌면 방학인데 다시 공부하자는 말이 듣기 좋게 들리지는 않았을 거야. 뭔가 내가 맡은 프로그램이 잘 풀리지 않으니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 그래도 5월부터는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마음이 설레. 운동을 잘하진 못해도 운동을 즐기는 터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아.

RaonAtti

HEY, 팡팀!

4월의 PUGARO, 어땠어?

P.E Class에서 Science Class로! :D

나는 체육을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P.E를 맡기로 했었어. 개설하기 전에 우리는 학생들이 뭘 배우고 싶어하는지 설문지를 했는데, 배구와 줄넘기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배구를 시작하려고 갔어.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학교 체육시간에 제대로 배운 나보다 더 게임을 잘 하더라고. 음.. 야매라고 해야하나? ㅎㅎ 언니, 오빠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라 동작이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곧 잘 하는 것을 보고 흠칫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게임이 하고 싶은 것 일뿐 배구를 제대로 배우려는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되었고, 하루는 솔이의 과학교실에 도우미로 참관했다가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과학실험을 아이들과 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너무 예쁘더라고. :D 그래서 솔이와 의논한 후 솔이가 P.E를 하고 내가 과학교실을 하기로 했어. 조금씩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정이 들고 있어서 정말 행복한 푸가로의 일상이야.

나는 이번 한 달 동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푸가로에서 만들어간 기억들이었어.
4월부터 시작된 아띠들의 Summer School.
내가 맡은 Music Class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지. 단순히 기타연주랑 노래 부르는 것, 음악듣기가 취미였던 내가 정작 음악을, 그것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걱정과 동시에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게 얼마나 좋을까 기대도 너무 되었어.
첫날 시작했던 Music Class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서 혼자 너무 신나서 Daisy 한테 계속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던 것 기억나?
4월 한달 동안 약 스무명의 천사같은 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라고 각자 다른 음색으로, 혹은 다른 박자로 다른 음정으로(?)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천사 같던지..
나눠줬던 악보를 그 다음시간에 고이고이 혹여나 잃어버릴까봐 조심스레 꼬깃꼬깃 접어서 가지고 온 라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나와서 한 번 대표로 노래해볼까?” 라는 말 한 마디에 너도 나도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레 나와서 악보를 들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기타치며 노래부르는 나를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며 “나는 꿈이있어요” 라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4월 한 달의 푸가로는 너무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 내가 매우 행복해 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한 달이었어.

RaonAtti

HEY, 팡팀!

4월의 PUGARO, 어땠어?

ART CLASS Teacher, Daisy

알다시피 나는 무언가 끄적거리고, 낙서하고, 색칠하는걸 엄청 좋아해. (여기 와서 내 특기를 발견했지. 난 간호대학이 아니라 예술대학을 갔었어야 했어ㅋㅋㅋㅋ)
그래서 ART CLASS를 맡게 되고, 또 내 ART CLASS의 수강생이 가장 많다고 했을 때 너무 나 기뻤어. 좋아하니깐.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어!
근데 문제는 나는 'How to draw'는 알지만 'How to teach drawing'은 모른다는 것이었지 …
처음에 ART CLASS를 계획 할 때, 각 수업 차수 마다 주제를 주고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맘껏 그리게 하고 싶었어. 그리기 도구도 넉넉히 준비해서, 교구에 제한 없이 숨겨있던 창의력을 맘껏 발산하게 하고 싶었지.
그런데 예산 문제로 물감이나,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넉넉히 살 수 없었고…
또한, 우리의 코디네이터 ALEN의 결정적인 한마디.

" 아이들에게 주제를 주고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리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아무것도 그리지 못 할 거야. 아이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거든. 어떻게 그리는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 "
쇠덩이로 머리를 '쿵' 한대 맞은 기분이었어.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림…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

첫 수업은 명찰 만들기로 대충 넘겼는데, 두 번째 수업을 진행 할 때는… 아 정말 또 다시 멘붕이더라. ALEN의 충고가 100%맞는 말이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났지. 그래서 전에 ALEN이 내게 시범수업을 해 주었던 것을 토대로 나무를 어떻게 그리는 지, 가르쳐 보려고 시도 했어.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할 뿐더러, 심지어 아이들이 날 바라보지 않더라구ㅠ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솔직히 종이와 크레파스를 주고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맘껏 그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어. 창의력을 맘껏 펼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나도 어렸을 때 종이에 아무 그림이나 무작정 끄적거리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
그런데 2번의 수업을 진행해보고 나니깐, ALEN 말처럼 아이들에게는 'Just drawing'이 아닌' How to drawing'이 필요한 것 같더라.
앞으로 남은 한달 간.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해 나가야 할까? 나 수업 잘 할 수 있겠지?

RaonA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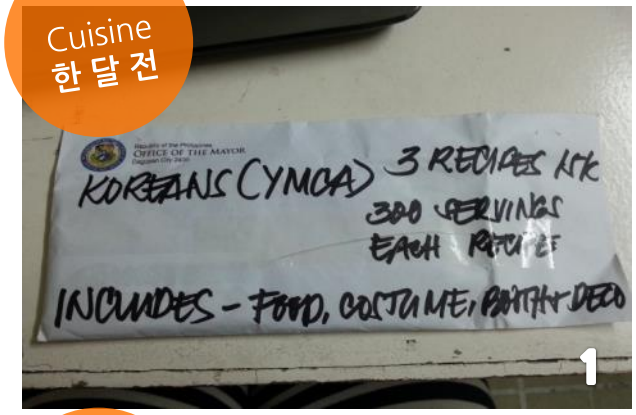
BANGUS FESTIVAL

세번째 이야기. 방구스 페스티벌

1. International Bangus Cuisine Showcase

3월부터 계획했던 Bangus International Cuisine이 마침내 4월 28일에 열렸다. 한국을 대표로 참가한 수민은 4월 한 달 간 재료를 공수하고, Bangus 요리를 만들고, showcase를 위한 의상 제작과 부스 설치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수진이가 의상 제작과 부스 디자인에 큰 힘을 보탰고, 수민의 수석셰프 Reynard는 재료공수와 plating 행사를 마무리 했다. 나머지 팀원들과 Y 식구들은 날카로운 입맛으로 음식을 평했고, 지쳐있는 수민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Bangus 김치찜과 조림, Bangus 김밥은 음식을 내놓자마자 300여명의 인파 속에 게눈 감추듯 사라져 각 국의 Showcase 음식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또한 YMCA PANGASINAN 그리고 라온아띠의 이름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며, Dagupan City의 지역 페스티벌인 Bangus Festival을 적극적으로 즐겼다는데 의미가 크다☺

Cuisine
한 달 전



1

2

1. Min, DAGUPAN CITY측으로부터 Cuisine 준비 비용을 받다!
2. YMCA내 1차 음식 평가회.
"Min! Masarap!(맛있어) KOREA부스 대박 나겠는걸?"

Cuisine
당일 아침

3

4

3. 대왕 무궁화를 제작중인 Daisy
4. 다들 분주하게 부스 설치 중
(Y식구들이 집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가져와 부스 꾸미기를 도왔다.)

Cuisine
Showcase
시작!

5

6

5. Bangus 김밥, 김치찜, 조림. 모두 다 맛있어요!
6. MIN, 방송 타다.
(이 날 수많은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는…)

RaonAtti

Cuisine Showcase 시작!

이렇게
International Bangus Cuisine Showcase는
끝이 났답니다 :D

BALON DAGUPAN Bangus Festival 2014

RaonAtti

HEY, 팡팀!

Bangus Cuisine Showcase 어땠어?

TONY 태수

4월 28일 드디어 우리의 셰프 Min이 나섰지. 그녀의 요리는 방구스를 이용한 김치찜, 방구스조림, 방구스 김밥. 처음 도착해서 일본과 중국의 부스를 보고 지기 싫다는 Daisy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부스를 환상적으로 꾸몄지. 그리고 나와 Daisy는 한복을 입고 부스앞에서 얼굴마담을 자처하며 사람들과 사진을 찰칵. 그렇게 시작된 Cuisine에서 방구스 김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Min의 요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연신 Masarap!(맛있다!)이. 이 곳의 유명한 방구스와 우리나라 음식을 혼합하여 멋지게 Cuisine을 치른 Min에게 큰 박수를 짝짝짝!!!

SOLE 솔이

정말 Amazing한 하루였어. Green camp를 다녀온 다음날이어서 많이 지쳐있었는데, 수민이의 음식으로 healing한 날이야. 아침부터 바쁜 수민이를 보며 부스를 꾸몄는데, 수민이가 오래 준비해 온 만큼 누가 되지 않게 나름대로 내 힘이 닿는 한 많이 보태려고 애썼어. 어떻게 300인분을 그렇게 금방 준비했는지, 평소 요리를 즐기지 않는 내게는 정말 놀라운 재능이야. 이 날도 모든 Y사람들이 우리가 제작한 Korea 티셔츠를 입고 함께 행사를 즐겨줘서 너무 재미있었어.

MIN 수민

WOW!!!!!!!!!! 정말 신나고도 힘든 이벤트였어. Competition이라고 듣고 스텝에게 신청했지만, 알고 보니 이번 해에는 Showcase로 바뀌었데… 한국을 대표로 부스를 얻었고 300인분으로 3가지 요리를 해야 하는 데! 나는 한번도 그렇게 많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됐어. 하지만 많은 도움 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풀어 나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D 방송국 인터뷰도 3군데정도 했는데… TV에 나오는 것을 봤다는 친구가 있어서 쑥스럽기도 해. 흐흐

아마 개인적으로 한 것 이라면 떨리기야 했게지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KOREA와 YMCA를 어깨에 지고 가려니 마음이 무거웠어. 그래도 필리핀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즐겁고 신나! 이 자리를 빌어서 T셔츠를 디자인 해준 수진이, 그 외에 모든 것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워. 한국 사랑해요!:D

RaonAtti

HEY, 팡팀!

Bangus Cuisine Showcase 어땠어?

JOSHUA 민제

이 때도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민누나가 준비한 맛있는 '방구스 김치찜', '방구스 조림', '방구스 김밥'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준비되는 음식들을 보면서 나는 군침만 삼킬 수밖에 없었어.
다시 그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몸도 영양소가 없어서 힘도 없는 상태라 웃으며 사진을 같이 찍는 것도 너무 어려운 상태였거든.. 아픈 거 티내기 싫어서 아침부터 같이가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너무 지쳐버려서 다시 돌아와 버렸지.. 그리고 다시 누워서 지친 체력을 보충해야만 했어. 한복을 멋지게, 이쁘게 입은 토니형과 수진이, 그리고 수민누나. 너무 즐겁게 준비한 음식 쇼케이스를 다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방해하기 싫었는데 중간에 가버리게 되어서 너무 미안했어. Y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리기도 싫었는데 말이야... 정말 즐길 수 있었던 귀한 기회고, 정말 재밌었을 축제인데 내겐 너무 아쉬웠던 Bangus Cuisine 이었어.

DAISY 수진

T-Shirt 디자인부터, 부스 꾸미기 까지. Wow! 정말 無에서 有를 창조 했었어. 근데 말이야, 나 정말 전공 바꿔야 할 것 같아. T-shirt디자인과 부스 꾸미기가 예쁘고 예쁘지 않고를 떠나 그냥 만드는 과정이 너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었거든. 내가 디자인한 T-shirt를 Y사람들이 모두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엄마미소가 다 지어지더라. Cuisine당일에는 갑작스럽게 2시간만에 부스를 꾸미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찌저찌 대.왕. 무궁화와 라온아띠로고 그리고 YMCA로고를 만들어 꾸미고 나니깐 다른 부스에 기죽지 않은 우리만의 멋진 부스가 탄생했었지. 나의 특기의 재발견 기회를 안겨준 SUMIN언니와 Balon Dagupan city에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어!

(이번 T-shirt 디자인으로 감동(?)을 받은 Marvin이 Daisy에게 YMCA PRE-SCHOOL LOGO디자인을 부탁하여, 지금 Daisy는 LOGO 디자인 구상으로 머리가 터져 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한다.ㅠ)

RaonAtti

2. 1st International Green Camp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Binloc에서 열린 캠프. 필팀 중 태수, 수진, 솔이와 팡가시난 Y의 green agent Emer가 함께 참가했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 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고, 필리핀의 각 지역에서도 많은 youth들이 참여하여 캠프를 빛냈다. 태수는 Team Wind, 수진이는 Team Heart, 솔이와 Emer는 Team Fire에 속해 Fishing, life vest 만들기, tree planting, 환경 그림 그리기, Baguio 탐방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한국의 대표로서 참가한 라온아띠팀은 캠프 내에서 350ppm 캠페인에 대해 각 국의 대사와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무대 앞에 섰으나, 다소 생소한 캠페인 홍보였는지 관중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다는 sad story…. (고민해야 할 숙제)

환경 캠프인 만큼 3박 4일간 텐트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관계로, 솔이가 큰 맘 먹고 텐트(P 3000)를 구입했다. 하지만 3박 4일 내내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캠프 마지막 날 태수만 텐트에서 잠을 청했고, 수진이와 솔이, Emer는 새벽에 Y로 돌아와 예정보다 일찍 캠프를 마쳤다.

3박 4일간 캠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많이 실망한 태수, 수진, 솔이는 과연 캠프를 계속 참가해야 하는 것인가 매일 밤 고민에 시달렸고, 결국 솔이와 수진이는 하루 일찍 캠프를 자진포기했다. 하지만 캠프 기간 동안 각자 다른 팀에 속해서 팀원의 부재에 대한 외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고, 매일 밤 서로를 다독이는 수다로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온 소중한 캠프이다.
회포를 풀기 위한 뒷풀이 Black Camp(먹고죽자파티)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GREEN CAMP 어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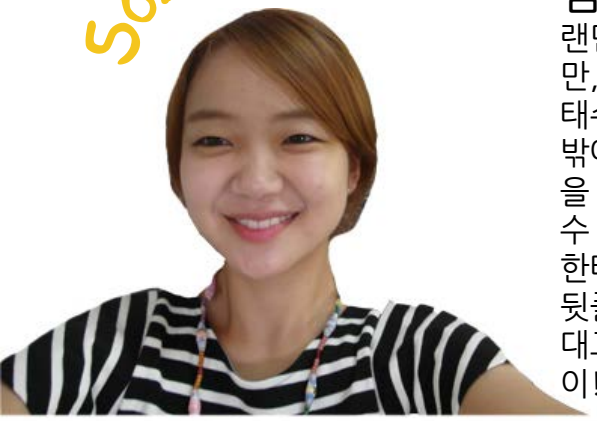
TONY 태수

Sir(?) Emer, Sol, Daisy, 그리고 나(Tony)는 방구스 페스티벌을 맞아 1st International Green Camp에 참가하게 되었어. 우리는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하며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지. 그러나 점점 이곳의 프로그램에 실망하게 되었고 타이틀이 Green Camp이지만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졸리비, 맥도날드 식사에 더욱 크게 실망하게 되었지. 텐트에서 자야하는 상황에 급하게 텐트를 구입했지만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Y에 돌아와 잠을 잤지. 둘째 날은 비가 엄청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의 가방이 젖었고 우리는 Y로 돌아와 젖은 옷가지들을 널고 오순도순 4명이서 잠을 잤지. 2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고작 2시간 자는 동안 우리는 모기와의 사투를 벌이며 나름의 재밌는 추억을 만들었어. 아 한가지를 빠뜨렸다. 그날 우리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아줌마의 콘서트를 구경하게 되었고 그것을 마치고 캠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프니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바람에 기다리는 캠퍼들이 생겨 나는 순간 화가 나 “왜 이렇게 준비가 미흡하냐고” 성질을 내버렸지 뭐야. 결국 마무리는 잘 되었지만 그날의 내 모습은 그리 이쁘지만은 않은 모습이었어. 어쨌든 다음날이 밝았고 셋째 날은 바기오를 다녀왔는데 엄청난 고도에 위치한 그곳에서의 경치는 정말 멋있었어. 돌아오는 길에 차사고가 거의 날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브레이크 고장까지 겹쳐 2시간 가량 기다리며 아슬아슬하게 다구판시티로 돌아오는 길도 나에겐 추억이 되어버렸지. 그렇게 셋째 날 밤이 찾아왔고 Sol과 Daisy는 중도하차선언(?)을 하였고 믿었던 Sir(?) Emer 마저 날 버리며 난 홀로 남겨져버렸어. 순간 나도 여기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우리를 위해 마무리를 깔끔히 짓고자 하였고 셋째 날 혼자 텐트에서 잠을 잤어. 잠을 자기 전 야외에 설치 된 샤워실에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며 샤워 했던 기억도 나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 그렇게 마지막 날이 찾아왔고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 다바오시티에서 온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들과 가까워졌지. 마지막에 헤어짐의 인사를 나누는 도중 Shane은 "Kuya Tony~"를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거야. “Don't cry, shane"을 말하며 헤어짐을 알리는 인사를 나누는데 그 순간은 나도 모르게 너무 뭉클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준비한게 없는데 나와 우리 Korea친구들을 위해 자그마한 열쇠고리 선물을 준비했더라고.(흑) 그렇게 캠프에 있던 선생님들과 다바오 친구들과의 헤어짐의 인사를 끝으로 캠프가 끝이 났지. 결국 사람이었더라고. 나도 그렇고 그들도. 사람 때문에 힘도 들었고, 짜증도 났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 캠프가 어떠했던지 간에 마지막의 헤어짐의 인사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서로 아쉬워하는 눈빛과 수줍은 미소로 마무리가 되더라.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나의 첫 번째 그린캠프.

HEY, 팡팀!

GREEN CAMP 어땠어?

SOLE 솔이



참가하기로 정해지기 전부터 너무도 가고 싶었던 캠프였어. 캠프에 가기로 하고 짐을 꾸렸던 날은 오랜만에 멀리 떠나는 느낌으로 설레서 잠을 잘 못 잤던 거 같아. 막상 도착한 캠프장에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기분으로 들떠 있었던 거 같아. 매번 같이 다니던 5명이 아닌, 태수, 수진, 솔이 조합이 단무지 없는 김밥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 같아. 두 시간 밖에 못 자면서도 밤 새 시 덥지 않은 말장난으로 웃음꽃을 피우고 캠프 중 당황해 하는 서로의 모습들을 감상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 태수오빠와 수진이의 극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나에겐 큰 수확이야(ㅋㅋ). Regine Velasquez 언니 concert도, 다 같이 Baguio 간 것도 나한테 너무 큰 추억이 되어버렸어. 두 번은 없겠지?
뒷풀이로 다녀온 Black camp도 한 번 더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즐거웠어. 하루 종일 텐트에서 부비적대고, 배를 빵빵하게 채우고 돌아오니 지금도 흥이 돋는다! Fire, Fire! 주께 모두 찬양하자! 다같이!!!!!!!!!!!!!!!!!!!!

Green camp? 나의 밑바닥을 보고 돌아온 캠프였지. 내 생애에 중도 포기라니!
2박 3일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 Green camp라는데… 식사는 Jolibee와 Mcdonald. 프로그램은 2~3시간 delay가 기본. 프로그램 또한 유익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 '대체 뭐가 Greencamp,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어. 게다가 궂은 날씨는 나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 Tony 오빠는 결국에 캠프 관계자 선생님께 버럭 화를 내고 말았었지. (오빠, 그때 진짜 무서웠어ㅠ_)
그렇게 참고 참다가 못 버티고 원래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었지?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스럽기도 해. 팀 리더였는데 중도 하차 하게 돼서, 같은 조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선생님들께도 죄송스럽고 또 내 자신한테 매우 실망스럽고. 하지만 그날 그 순간엔 캠프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억지로 하루 더 버티다간 내가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 하던 내가 rule을 깨고 일탈 해버린 순간이었지.
지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상황이 이해가 돼. Green camp., 중고등학생 대상이의 캠프였고, 기껏해야 이번 Camp가 1st 였으니깐. 다 시행착오였던 것이었던 거지. 그래도 이 Camp가 마냥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된 것은 아니야. 밤늦게, 새벽 일찍 트라이시클을 타고 Y에서 캠프장으로 출퇴근 하던 일, 그리고 그날의 회포를 시원하게 풀 수 있었던 'Black camp'까지. 색다른 경험이었다 정말☺

DAISY 수진

RaonAtti

GREEN CAMP 어땠어?

Cuisine 준비로 참가하지 못했던 MIN

너무나 가고 싶었던 green camp였지만, 27일 저녁 늦게 끝난다는 말에… 28일 Bangus cuisine showcase를 준비해야 하는 나는 못 가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어. 하지만… 다녀온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안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ㅎㅎ

건강악화로 참가하지 못했던 JOSHUA [민재 in YMCA HOTEL 201호…ㅠㅠㅠㅠ (휴식중]

그린캠프… 허허허허..

다른 멤버들이 캠프를 갈 때 나는 이 때 너무 아파서 누워있었지…

지금 보고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아직 다 회복이 안 되었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앓았어.

하루에 다섯 번 이상 화장실을 가서 물을 쏟아 내고 배가 너무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어야 했고… 누워있으려니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정말 악몽 같았던 나날이었지. 아띠들은 캠프를 가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이야기 할 상대도 없어서 정말 괴로웠던 나날이었어. 배는 왜 이리 아프고 난리 인지 말이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본적이 처음이라 무서웠어. 정말 이러다가 한국으로 조기귀국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 우리 멤버들이 너무좋고, 푸가로의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몸에 아무런 힘도 없고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고 힘들어졌었어. 살이 쭉 빠진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보면 내 모습이 참 낯설고 힘이 없는 눈빛을 보면 좌절감이 느껴졌지. 매사에 밝고 매사에 활동적이고 긍정적이었던 내 모습이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 같은 기분… 일 만들길 좋아하고 또 일 하길 좋아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무기력 해질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덜컥 겁이 났지. 지금까지 약 3주동안 아파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내 모습도 있었고, 극도의 외로움과 허전함, 무료함,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껴봤어.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보니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었고, 혼자 이리 저리 고민도 했었던 시간이었어. 특히 다른 아띠들이 캠프에 갔었을 때 말이야.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아띠들이 많이 그리웠어. 그리고 얼마나 내가 우리 팀 아띠들에게 의지했는지도 알게 되었지. 캠프가 끝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에 힘이 없는데도 오피스로 내려갔으니 말이야.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그리웠고, 너무 반가웠어. 나의 그린캠프(?)는 그랬어.

사진으로 보는
GREEN CAMP

RaonAtti

#BONUS

사진으로 보는 뒷풀이 'BLACK CAMP'

RaonAtti

BANGUS FESTIVAL을
맘껏 즐길 수 있었던
4월이었습니다!

HOLYWEEK

4월 13일 Holy Thursday | 4월 14일 Good Friday |
4월 15일 Saturday Glory.

네번째 이야기. 팡팀의 HOLYWEEK

1. Hundred Islands Trip

4월 14일 good Friday☺ 팡가시난 Y의 모든 스텝과 라온아띠가 함께 떠난 첫 여행. Alaminos에 위치한 Hundred Islands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새벽부터 한 대의 지프니에 오밀조밀 모여 앉아 서로에 어깨에 기대가며 도착한 Hundred Islands는 TV에서만 보던 아름다운 필리핀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보트로 섬에서 섬을 옮겨 다니며 함께 준비한 점심을 먹고, 다이빙도 하고, 스노쿨링을 하면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햇빛에 그을려 온몸에 '나 헌드레드 아일랜드 다녀왔어요~' sunburn을 남기면서 Y 식구들과 Hot한 시간을 보낸 하루..

RaonAtti

HEY, 팡팀!

Hundred Islands 어땠어?

TONY 태수

Holy Week를 맞아 우리에겐 시간이 생겼고 Y식구들과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그곳은 Alaminos City에 위치한 100개의 섬 Hundred Islands.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 Kuya Jimmy의 쩍벌 다리로 인해 2시간 가량 달린 지프니에서 내려 쩔뚝거렸던 내 다리. 맑은 물에서의 물장구. 수영. 맛있는 음식들. 처음 경험한 다이빙. 배에서 느낄 수 있는 바닷바람. 그리고 Y식구들과의 많은 사진들. 당일치기 여행 치고는 정말 최고의 순간들이었지.

SOLE 솔이

이 날 만큼은 마치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가 된 기분이었어. 예상치도 못한 너무도 아름다운 곳에서 자판기에서 섬을 고르기라도 하듯이 보트를 타고 섬을 골라 다니며 수영을 했잖아. 무엇보다 더 즐거웠던 이유는 모든 Y사람들이 다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서 였던 거 같아.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도 각자 벽을 두고 지내는 것처럼 거리가 느껴졌었는데, 이 여행을 계기로 함께 공유할 추억거리가 생긴 거잖아. 여행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졌음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 준 Y사람들한테 너무도 고마워! 그렇게 여행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는데, 휴일을 알차게 꽉 채워 선물을 받은 기분이야! 정말이지 행복해.

DAISY 수진

사실 우리. 연휴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아띠들만의' 여행 계획을 세웠었잖아. 필리핀에 온 김에 유명한 관광지 한번 가 보자면서 CEBU를 갈까 BORAKAY를 갈까 고민했었지. 근데 아마, 우리끼리 CEBU나 BORAKAY를 갔었다면 굉장히 후회 했을거야. 왜냐구? Hundred island! 완전 대박! 최고였었거든!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그야말로 '에메랄드'색의 바다. 그 바다에서 실컷 헤엄치고, 둥둥 떠나니며 햇빛도 맘껏 쬐고, 스노쿨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 날 vitamin D합성 제대로 했지. 이런 꿀 같은 휴가, 아마 내 평생에 다시는 없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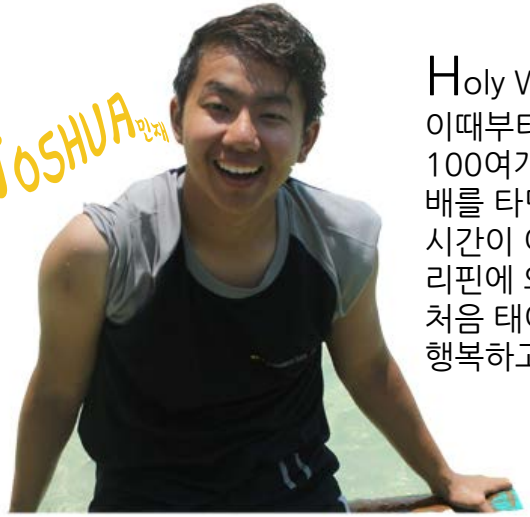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 이번 휴가를 통해서 Y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으며 더욱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그 동안 지쳤던 심신이 다 치유되었던, 에너지 충전 만.빵.의 기회이기도 했지.

그러니까 말인데… 우리 Hundred island 또 한번 가자~ 응? 제발~

RaonAtti

HEY, 팡팀!

Hundred Islands 어땠어?



Holy Week을 맞이해서 Y식구들과 함께 떠난 첫 번째 여행!
이때부터 서서히 배앓이를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은 못 먹었지만, 너무나 즐거웠던 추억이었어.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서 이름이 붙여진 100 island.
배를 타면서 여러 개의 섬을 오가며 수영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던 시간이었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구명조끼 입고 둥둥 떠있을 때 기분은 아직도 생각하면 기분 좋아. 필리핀에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논 것 같아. 바다가 지겨울 만큼 정말 신나게 놀았지. 난생 처음 태어나서 다이빙도 해보고 말이야. 뭐라고 어떻게 더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한 마디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기나긴 휴일을 그저 집에서만 보내기 싫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결과!!!!!!!! 이것이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했다. 푸르른 바다가 있고, 물 속이 맑아서 스노쿨링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영도 더불어 할 수 있는!!!!!!!! 이거다!!!!! 너무나 행복했던 하루였어. 물고기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나는 색이 예쁜 물고기들, 엄청 큰 조개들을 보았기 때문에 스노쿨링이 재밌었고 신기했어. 난생처음 그렇게 맑은 곳에서 수경을 쓰고 바닷속을 들여다 봤거든! 다이빙도 했는데 현지친구들과 다이빙하면서 베스트포즈샷을 찍어보자고 해서 무섭지만 나도 도전!! 너무나 해맑게 표정이 나와서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우리 팀에서 하얀 축에 속했던 나인데…. 깜박하고 비치웨어로 갈아입고서 등에는 썬크림을 안 발랐고, 나는 Hundred Island이후로 심하게 햇빛화상을 입어서 등에 수영복모양대로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버렸어… 등이 너무 따갑고 아파서 2,3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T_T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오히려 휴가 다녀와서 타는 바람에 필리핀 사람 같다는 말을 듣고 있고 그냥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휴가에서 탄 이후로 탄력 받아서 열심히 점점 까매지고 있어. ㅋㅋㅋ

RaonAtti

2. Homestay With Y Family

Holy week의 긴 연휴를 맞아 팡가시난 Y식구들과 2박 3일간 홈스테이를 하였다. 솔이는Mommy Julie와, 수진이는 Emer네 집으로, 수민이는 Sir Richard와, 민재는 Mhon, 태수는 Jeremy의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 아띠하우스가 아닌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는 일이 마냥 설레는 일인 줄 알았으나 몇몇의 아띠들은 난색을 표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HEY, 팡팀! Homestay 어땠어?

1) SOLE - with Mommy Julie [Bonuan / Anda]

나는 Mommy Julie와 함께 Anda에 다녀왔어. Y 식구들이 "솔이, 마미에게로 가게 돼서 행운"이라며 처음부터 부러워해줘서 정말 좋았어. 마미도 나를 이곳 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딸처럼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 특히, 마미 고향인 Anda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데 나 역시 막내딸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처럼 가족여행 온 듯한 기분을 맛보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이 그립기도 했어(흑흑 사랑하는 엄마아빠 보고싶어). 추석처럼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성묘도 하고,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소중한 시간에 나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Hundred islands에 다녀오자 마자 바로 Anda에서 해수욕장들을 연달아 다니느라 까맣게 타서 나보고 Filipina 다 됐다고 하는 말들이 듣기 좋아. 사흘 간 팡가시난 이곳 저곳에서 많은 가족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전해야 할 지 고민이야. 고마운 가족들, 나 정말 복둥이인듯!

RaonAtti

2) Daisy - with Emer [Calasiao]

내 홈스테이 짝지가 EMER로 결정 되었을 때, 솔직히 난 매우 기뻤어. 나를 항상 놀리고 괴롭히는 앙숙 EMER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Kuya.EMER였거든. 사촌오빠 집에 놀러 가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많이 됐지. 그냥 홈스테이 자체가 걱정됐었던 것 같아. 워낙 울타리 '안'생활을 즐겨 하는 지라, Raonatti라는 틀을 잠시 벗어나 팀원들과 떨어져 홀로 2박3일 동안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두렵더라고.
하지만 EMER네 가족들이 나를 너무나도 살갑게 챙겨주고 아껴주셔서 2박 3일 동안 두려움과 걱정은 커녕,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던 것 같아.
EMER네 집 앞에는 정말 큰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둘러싸고 많은 Cousin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 그 마당에 다 같이 모여 함께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조카들의 재롱잔치를 지켜보는데…
그 순간 내가 홈스테이를 하러 온 '손님'이 아닌 정말 EMER네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 정말 행복했지. 무엇보다도 나를 정말 친딸처럼 챙겨 주시던 EMER네 어머니! 내 다리에 있는 작은 상처 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며 약을 챙겨주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한국에 계시는 엄마 생각도 많이 나더라.
암튼 난 2박 3일동안 EMER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잔뜩 얻어먹고, 정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왔지. Atti house로 돌아가기 싫더라. 계속 여기서 살고 싶었어!
(그래서 Black camp를 위해 EMER네 집에 다시 방문 하게 됐을 때 너무나도 기뻤지. 그 때 깜빡하고 못 찍었던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3) Min - with Sir. Richard [Malasiqui]

나는 Sir Richard집으로 갔다 왔어. 우리가 활동 마무리 즈음 갈 Malasiqui라는 마을인데, 내가 도시에서만 살아서 필리핀 왔을 때 힘들어했기 때문일까? 처음에 갈 때 Jimmy 사무총장님이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을 했어.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 차로 1시간을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정말 시골 같았고 개들도 많았지만 정말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에 마음에 들었어. Richard의 대가족(30명쯤? 아니..30명이 넘을 수도 있는…)과 인사를 하고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나는 개미의 습격으로 다리 전체를 물렸더라고…
그래도 마냥 즐겁게 대가족과 새벽에 Lingayen에 가기 위해 트럭을 탔어. 처음으로 엄청 큰 트럭 뒤에 타서 이동했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어! TV에서만 보던 트럭 뒤에 타서 이동을 하다니!:D 도착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대식구의 묘미를 느끼고 왔어. 휴가 다녀온 날 가서 홈스테이 하는 바람에 많이 피곤해서 더 어울리지 못 한 게 너무 아쉬웠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가서 놀고 싶어!

4) Tony - with Jeremy [Gayaman Brgy}

※ 홈스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글은 절대 필리핀 문화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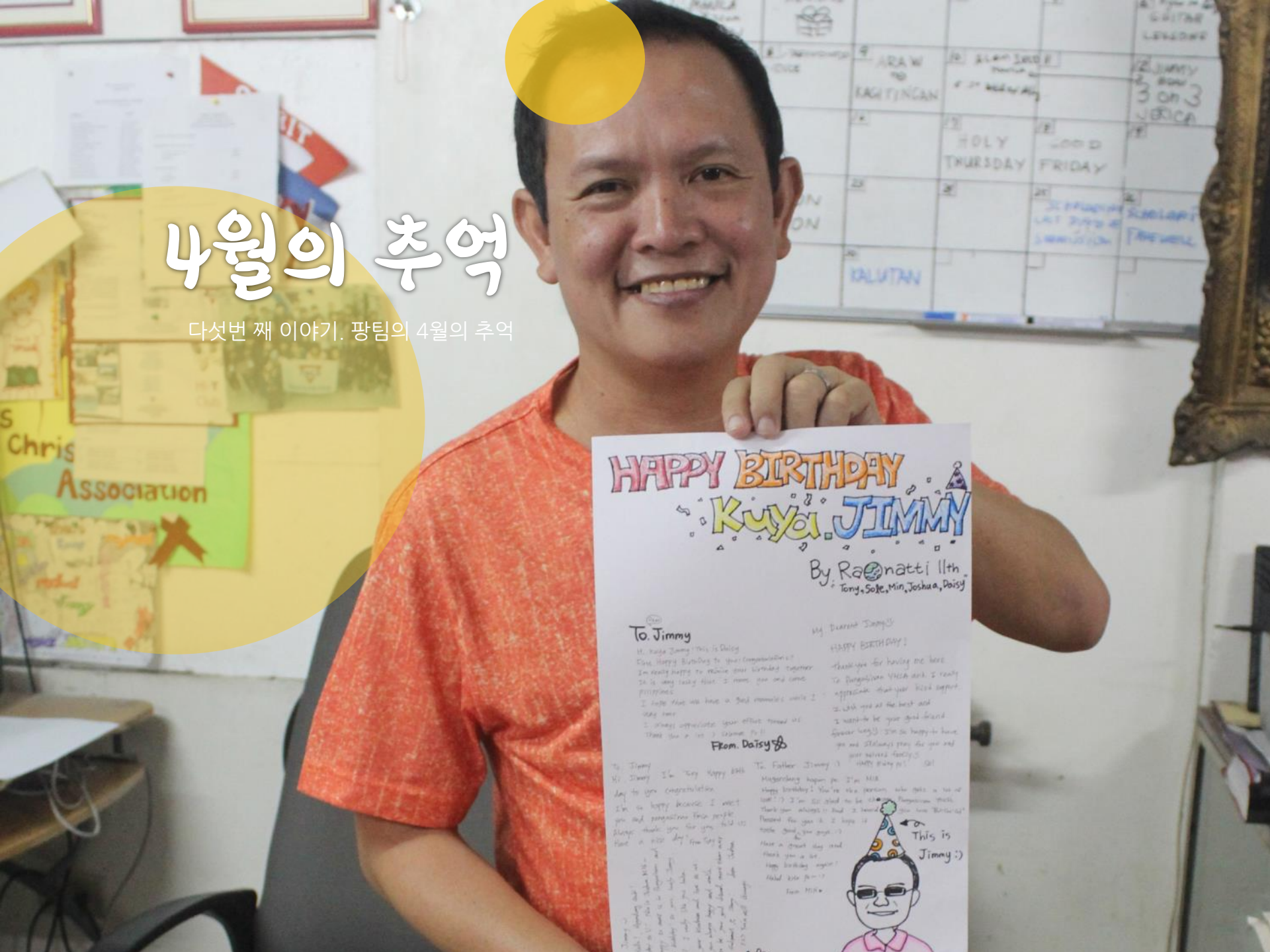
Holyweek와 맞물려 우리는 모두 2박3일 개인 홈스테이 시간을 갖게 되었고 나는 감사하게도 Jeremy의 선택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 그의 큰이모집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밤늦게 인사를 마치고 바로 잠이 들었지.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아침도 엄청난 양을 먹더라고.(진짜 산더미) 나는 적당히 먹고 하루를 시작했지. 먹자마자 하루를 농구로 시작하더라고. 농구공을 한명이 가지고 코트로 들어서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되더라고. 여기는 바랑가이(마을)단위로 농구리그, 토너먼트를 하는데 그날 다른 바랑가이로 챔피언십 결정전을 보러갔어. 그 게임 한마디로 대박게임. 역전에 역전을 거듭. 농구코트 주변에 엄청난 응원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어.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 농구게임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다니. 한국에선 상상 못할 일. 어쨌든 돌아와서 산더미 같은 밥을 먹고 낮잠을 때렸지. 그리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이곳사람들은 팬티를 입고 샤워를 하더라고. 일단 팬티를 입고 다 씻고 수건으로 둘러쌓아서 팬티를 빨래 통에 던지고 갈아입더라고. 나는 팬티 입고는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샤워를 마치고 Jeremy의 커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중 한분이 더운 날씨 탓에 땀이 범벅인데 과도를 가지고 때를 만들어서 그것을 옷에 닦더라고. 순간 이건 뭐지 하면서 그 커즌을 웃으면서 쳐다보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씨익' 웃더니 과도로 더 열심히 때를 만들더라고. 중요한건 그 일이 지나가고 10분 뒤 망고를 먹게 되었는데 Jeremy의 조카(ALIEL)가 과도를 갖다 주는데 아까 그 때 밀던 그 과도가..... 순간 멈칫! 세제로 닦았겠지만 어쨌든 난 그 과도로 망고를 4개나 깎아먹었지. 맛있더라고. 바랑가이에는 거의 커즌이 사는 거 같더라. 이웃이 다 커즌이래. 저녁이 되어 바랑가이 Fiesta라고 해서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나봐. 하우스마다 고기를 비롯한 음식을 준비해놓고 다른 마을이나 이웃주민이 놀러 가면 음식을 산더미같이 주고 같이 먹고 즐기는 축제였어. 그 Fiesta를 위해 다른 마을로 모터사이클을 타고 Jeremy와 같이 가는데 그 시간은 저녁 6시 20분. 해가 막 지고 있는데. 모터사이클 바람을 맞으며 노을이 지는 그 모습은 진짜 최고의 모습이었어. 그때의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나는 하우스를 두 곳 방문했는데 닭, 돼지, 오리를 비롯한 고기로 배를 채웠고 중요한건 내가 방문한 하우스도 또한 커즌이었다는 사실. 그렇게 먹을 것을 즐기고 돌아와 둘째 날을 마무리 지었어.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오전에 옆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곳에서 또한 20대의 예쁜 친구와 친구가 되었지. 그렇게 마무리된 나의 홈스테이. Jeremy의 큰 이모, 사촌형, 그리고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놈의 정과 아쉬움이 뭔지. 헤어질 때 슬프더라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갈 그곳에서의 홈스테이. 잊지 못 할 시간이었어.

RaonAtti

5) Joshua- with Mohn[Sari sai]

6월 중순 말라시키에서 시작할 홈스테이를 미리 맛보았던 2박 3일의 짧았던 홈스테이.
나는 Mohn의 집에서 머물렀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는 Mohn의 가족들.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 어느새 불편했던 아띠하우스가 내 집 같이 편안해져서 다른 곳에서 잔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많이 낯설었어.
배가 조금씩 아파오던 시기라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지 못했어 매우 슬픈일이었지 흑.
처음 도착한 날은 'Good Friday'라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지. 나랑 Mohn, 그리고 Mohn의 여동생인 Zandra는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 Mohn이 참 나와 비슷한게 많더라고. 교회에서 기타 반주자고, 찬양 인도자고, 기타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로 보낸 건가? 무튼, 낯설면서 따뜻한, 금요일이 지나갔어.
그리고 토요일엔 Beverly라고 하는 Mohn의 사촌 누나를 소개받았어. Beverly는 내가 자신의 첫 외국인 친구라면서 되게 반가워했어. 한국에도 꼭 가고 싶다고 그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고.. 주로 여기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는 Mohn과 여동생 Zandra, 그리고 사촌 누나 Beverly와 주로 시간을 보냈어.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Mall을 돌아다니는 걸 즐겨하더라고. 하루에 세 개의 Mall을 돌아다닌 것 같아. 아이쇼핑하고, 돌아다니고 하하하.. 그 다음으로는 Tondaligan Beach에 가서 수영하고, 바닷물에서 같이 뛰놀고 그런 시간을 보냈지. 같은 또래인 친구들하고만 어울려서 되게 편하고 재미있었던 하루였어. 자유롭고 뭔가 프리한 느낌?
마지막 날에는 같이 농구 시합을 구경하다가 점심을 먹고 인사를 하고 Y로 돌아왔지. 사람들이 모두들 정이 많은 것 같았어. 내가 간다고 하니까 다들 마중 나와서 인사해주고... 한 번 인사만 주고 받은 주민이 대부분이었는데도 내가 간다고 하니까 모두들 나와서 꼭 다시 오라고 인사를 다 해 주는거야... 감동이었지. Y로 오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2박3일의 홈스테이도 이렇게 떠나기 싫고 정이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말라시키에서 하게 될 홈스테이는 얼마나 즐거울까 기대가 되면서도,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참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정이 정말 깊게 들것 같다는 생각..? Min 누나에게 잘 지내냐고 어떻냐고 문자가 왔었을 때 '나는 너무 여기가 좋아, 떠나기 싫어 너무 행복해' 라고 답을 했었어. 사랑 받는 다는 느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겨주고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진심으로 나에게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홈스테이가 너무 기대되면서도 떨어지는 이별이 참 걱정되었던,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2박3일 이었어.

RaonAtti



4월의 추억

다섯번 째 이야기. 팡팀의 4월의 추억

1. Jimmy와 Alen의 부재. 그리고 Atti만의 Holyweek

한국 YMCA 100주년 기념 라온아띠 코디네이터 미팅으로 인해, 우리의 정신적 지주 Kuya. JIMMY와 코디네이터 ALEN이 4월 첫 주간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너무나도 덥고 습한 Atti house에서 요리 하는 것이 힘들었던 Lazy.팡가시난 팀은 잠시 Atti's Holyweek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 달에 한번씩 에너지를 충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Holyweek를 갖자는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의 Holyweek동안 모든 저녁식사는 지인의 음식점, 혹은 Bagus festival로 열린 Foodstreet에 가서 해결하였고 샤워까지 Y에서 하고 집으로 귀가하다 보니, Atti house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only 잠자리에 드는 시간 뿐이었다고.

또한 이번 Atti's Holyweek동안 Jimmy와 Alen의 부재는 이들이 우리 Atti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마지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운 기분이었다는!

2. Jimmy's Birthday

4월 12일은 팡가시난 YMCA의 사무총장인 Kuya Jimmy께서 45번째 생신을 맞이했다. 아침부터 Y 식구들은 Kuya Jimmy의 깜짝생일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라온아띠 또한 Kuya Jimmy를 위한 '불고기'와 손편지를 손수 준비했고,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한 Jimmy의 생일파티는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막을 내렸다. 생일축하해요<3 Jimmy!

3. 김민재 식.중.독

필리핀에서 막강한 식욕을 자랑했던 김민재 군(22세, 연애중)이 식중독으로 2주간 병상에 누워있다. 식중독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매일 점심 대학가 Zamora st의 canteen에서 주문한 '굴'요리 때문인데, 스테미나에 좋다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점심마다 굴을 섭취하다 보니 식중독으로 앓아 누운 것이다. 한 달 내내 키운 근육도 병으로 인해 근육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잃어 maraming guwapo(very hansome)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김민재 군의 부재로 김태수 군은 세 명의 여자 단원 사이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김민재 군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민재야 아프지 마~ 얼른 같이 탕수육 먹자!'

개인 에세이
여섯번 째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ng Soccer ay
ng larong
agamitan ng paa
ulo.
Kick
ng larong
odgeball ay hango
a larong tupak-
oda.
KPOP IS LIFE

DAISY 수진

이 곳에 온지 두 달 여간의 시간이 지났다. 한 때는 시간이 참 더디게 흐른다고 느꼈었는데, 벌써 5월이라니!
고작 두 달 만에 " 나 필리핀 환경에 적응했어요! "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3월보다는 이 곳 생활에 많이 적응 한 듯 하다. 짜고 달아 거부감이 느껴지던 필리핀 음식도 언제 그랬냐는 깨끗하게 한 그릇을 비울 수 있게 되었고,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도 모자라, 매일 매일 간식타임을 가지며 겉잡을 수 없이 건강해 지고 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병원신세 한 번 없이 건강하게 필리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일거라 내 자신을 위로 하며:D) Dumpsite와 Pugaro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과 Y사람들과도 많이 가까워 졌다. 그러고 보면 처음 3월 몇 주간은 내가 상상했던 필리핀의 모습과 실제 필리핀의 모습이 조금 달라서, 차라리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갔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다구판을, 팡가시난을, 필리핀을. 떠나고 싶지 않다!

꽉 짜여진 틀 안에서 바쁘게만 살아 오던 나.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항상 조급해 하던 나. 마음보다는 머리가 먼저 움직이던 나. 그래서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이 곳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행동 하나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부담의 끈(?)을 잠시 내려 놓고 고개를 드니, 이제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 온다. 아이들, 사람들, 그리고 트라이시클을 타고 신나게 도로를 내달릴 때마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
이 곳에서 나도 몰랐던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고, 정말 미세하게 나마 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의 변화도 생겼다.
' 머리로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때때론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나가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아무튼 나의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찌푸리기도 많이 찌푸렸지만 웃기도 많이 웃었던 한 달 이었다.
한 때는 고슴도치 가시 세우듯이 나의 온몸의 예민함이 가시처럼 돋아서 평소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여졌던 Y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쇠창살로 내 가슴에 박혀 너무나 아플 때도 있었고, Dumpsite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노는 아이들을 통제해보려고 하다가 정신 줄을 놓고 함께 매달려 원숭이 흉내를 내던 적도 있었다. Green camp 때에는 투덜투덜 울먹울먹 거리다가 결국 camp를 중도 하차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고, 하루는 가벼운 미소마저 짓기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나 사람들을 피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RaonAtti

DAISY 수진

그래,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 Dumpsite에 갈 때면 저 멀리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내 품에 안기는 아이들, 비록 흰 옷이 회색이 되었지만 '에이, 집에 가서 깨끗이 빨아야지 뭐~' 하고 웃어 넘기며 아이들을 번쩍 번쩍 안아 올릴 때도 있었고, 그렇게 힘들었던 Green camp 였지만 그 캠프를 통해 팀원들과, 그리고 Sir. Emer(?)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쌓으며 더욱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한 때는 가시가 되어 박혔던 농담들도, 이젠 웃음으로 승화 시킬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내게 농담 한마디 없는 날이면 왠지 모를 아쉬운 기분까지 든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까지 3달이, Homestay를 위해 Malasiquie로 떠나기 까지 약 1달 반의 시간이 남았다.
남은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Dagupan을 떠날 때, Philippines을 떠날 때. 나는 눈물을 흐릴까 미소를 지을까? 그리고 이 곳 사람들은?! '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울컥한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쌓였는데, 어떻게 이 곳을 떠나지?
그래서 시간이 더 흘러버리기 전에 시간을 붙잡고 싶고, 이 순간에 머무르고 싶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시간이 올 수 있을 까?
라온아띠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써내려 가던 순간부터, 면접 보던 날, 합격 전화를 받던 날 까지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 그래도 내게 필리핀에서의 지금 이 시간들은 ,너무 소중하다.
으아아 시간아, 조금만 더디게 가주면 안되겠니?

JOSHUA 민재

#4월, 신나게 놀다. 정말로.

4월은 필리핀에서 한 달 동안 'Bangus Festival'이 열린다. 진짜로 무려 한 달 동안...
Bangus라는 생선이 도대체 뭐길래 한 달 동안 축제를 열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zzzz)
여기 저기 들리는 축제 준비 소리, 밤새 들리는 Gilon Gilon 준비 하는 노랫소리, 드럼소리, 춤 소리. 여기 필리핀은 4월 한 달 동안 축제로 들썩 들썩 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열리는 축제가 있을 때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고 복 받았다는 생각을 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성대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길게 진행하는) 축제를 경험해 보겠는가?
정말 많은 추억을 담아냈던 4월이다.
100 Island에 가서 배를 타고 원하는 섬을 골라가며 놀았던, 정말 수영이 지긋지긋해질 때 까지 물에서 둥둥 떠다녔던 기억들.
처음 봤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2박 3일간의 홈스테이. 필리핀 모든 바랑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즐겼던 Gilon Gilon. 그리고 죽어라 아팠던 나의 YMCA Hotel 201호의 외롭고 지루했던 기억들. (뒤에 이어서 쓰겠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4월 한 달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의 웃음과 노랫소리에 반하다.

4월. 우리의 활동지 중 하나인 Pugaro에서 아띠들의 Summer School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맡게 된 Class는 Music Class. 이것을 위해 모아놨던 Fund로 기타도 구매하고 악보도 이것저것 찾으며 노래를 준비했는데 만약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잘 운영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저런 걱정을 하면서 첫 날 기타를 매고 Pugaro로 향했다.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 스무 명 이상의 친구들이 나의 뒤를 총총 따라오며 교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Pugaro를 오기 직전과 완전 정반대의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처음 준비한 노래는 Abba의 'I have a dream'
4살부터 많으면 10살까지의 아이들이 한곳에 앉아서 나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나는 꿈이 있어요.' 라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 비록 음정도 다 틀리고, 박자도 맞지 않으며 가사도 제대로 읊조리지 못하고 'I have a dream'부분에서만 목소리가 커졌던 그런 노랫소리였지만 내겐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웃는 아이들, 진짜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기타를 치는 내내 활짝 웃으며 연주 했었다. 걱정이었고 부담이었던 Music Class가 이제는 아띠 활동 중에 가장 즐거운 일이 되었고, 가장 기대되는, 행복한 일이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음정, 박자 다 무시한 그들의 노랫소리에 반해버렸다.

RaonAtti

JOSHUA 민재

#4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그리고 겁나 길게 아파보다.

배가 너무 아팠다. 일주일을 혼자 참아보고 참아봤지만 너무너무 아파서 새벽에 코디네이터 Alen에게 문자를 보내고 급기야는 병원을 가게 되었다.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했던 병원. 참다 참다 못 참을 것 같아서 병원을 알렌 뒤에 매달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에 급하게 갔었다. 식중독 판정. 너무 더운 필리핀의 여름인 4월에 상한 굴이 아마 원인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좌절 할 수 밖에 없었다. 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인데, 여기서 마음껏 굴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매일 먹던 나에게 닥친 시련이란...

약 2주간을 YMCA Hotel 201호에 혼자 외롭게 갇혀(?) 있었다. 힘도 다 빠져 무력하게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야위어 가는 내 모습에 좌절했다. 먹는 것들이 줄곧 다 배출되어 버리고 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걷는 것도 지치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끔 찾아오는 Y스탭들과 팀원들과 이야기 할 때도 최대한 힘을 내서 이야기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는데 그게 잘 생각처럼 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고 힘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말 2주간의 시간이 지독하게 외로웠다. 팀원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같이 활동하고 싶었다. Pugaro의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Dumpsite의 천진난만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다. 맛있는 음식도 마구 마구 먹고 싶었고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았다.

너무 오래 아팠다. 너무 오래 누워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 팀원들이 없으니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으며, 내가 이들을 정말 가족처럼 여겼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깨닫지 않아도 괜찮은데 유유)

아팠을 때 묽은 죽을 몇 번이고 웃으며 끓여준 Min 누나, 없으니 허전하다고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 쥰 Tony형,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찾아와서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준 Sole 누나, 빨리 나아서 같이 맛난 것 먹자고 울상 짓던 Daisy.

한 사람 한 사람 어찌나 귀하고 고맙던지. 몸은 너무너무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또 다른 감사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벌써 2달이 지나갔다. 3월 보고서를 쓴 것이 진짜 언제인데 벌써 4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에세이를 쓰고 있다. 시간이 빨리 가는게 이제 두려울 정도이다. 내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 이 경험들을 통해 나는 어떻게 또 변했을까? 더 기대되는 5월은 맞아본다.

RaonAtti

MIN 수민

어리바리, 허둥지둥하던 3월이 지나 벌써 4월이 다 갔다. 4월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휴가로 Hundred Island갔던 것, Sir Richard집으로 홈스테이 다녀온 것, 3월에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지만 이번엔 또 다른 이유로 병원에 다녀온 것, 요리 경연 대회인줄 알고 참가의사를 밝혔으나..... 알고 보니 한국을 대표해서 음식showcase를 열어야 했던 것 등등...
Hundred Island 가기로 정해지기 전, 우리 팀은 Holyweek에 집에서만 보내기 싫어서 Y의 스텝에게 의사 표현을 했고 스텝들의 회의 끝에 섬으로 휴가 가기로 했다. 필리핀에 왔으니 맑고 푸른 바다에 가서 둥둥 떠다니며 스노쿨링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간 섬은 정말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있었다!!! 물고기를 좋아하는 나에게 섬투어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다. 색이 화려하고 예쁜 물고기들과 두 명의 얼굴을 합쳐도 큰 조개를 보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구명조끼 위에 떠서 둥둥 떠다니는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날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가서 비치웨어로 갈아 입었는데... 바보같이 등이 뚫린 비치웨어를 입고 등에 썬크림을 바르는 것을 까먹어서.. 화상수준의 Sunburn이... 너무 따가워서 2~3일 밤을 설쳤다... ㅠㅠ 지금도 선명하게 까만 피부가운데에 수영복 자국이 뽀~~~~얀, 하~~~~~얗게 남았다. ㅋㅋㅋ 내가 필리핀 오기 전 얼마나 하얀 피부였는지 증명해주는 증거로 남았다~ㅋㅋ)
섬투어를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바로 5명이 찢어져서 각자의 홈스테이를 했다. 나는 Sir Richard의 집인 Malasiqui로 떠났다! Richard말고는 모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낯선 환경에 대한 설렘, 두려움이 함께하면서 홈스테이는 시작되었다. 활동 막바지쯤 우리가 머물 Malasiqui라서였을까? 괜스레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싶었다.
Richard의 대가족이 함께 바다로 휴가를 가기로 해서 많은 가족이 있었고 그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고, 나 또한 필리핀어를 할 줄 몰라서 조용히 지내며 수줍게 미소만 날리고 와서 아쉽다. 다음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조금이라도 필리핀어가 늘어서 부족하게라도 수다 떨 수 있기를 꿈꿔본다!:)
Hundred Island에 가기 10일전, 복숭아뼈에 작은 생채기가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수영장물에 발을 담그고 동동거렸었다. 그날 밤, 갑자기 생채기 주변에 통증이 생기면서 원래 발목의 1.5배로 붓기 시작했고, 날이 지날수록 붓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샌달이 작아서 신기 힘들 정도로 붓고 통증도 심해졌다. 결국 10일정도 버티다가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도 맞고 먹는 항생제에 항생제 연고까지 받아서 왔다. 수영장에 상처가 있는 발을 담근 탓인가 보다. 그것도 내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탓인 듯 하다. ☺ (필리핀 와서 병원비로 20만원쯤 쓴 것 같다……^^;)

RaonAtti

MIN 수민

마지막 최고의 이벤트. International Bangus Cuisine Showcase! 얼떨결에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음식을 접한 반구스 요리를 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함께 설렘이 있었던 이벤트! 요리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나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내가 언제 또 하게 될지 모르는 한국대표로 요리를 해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정규 뉴스방송에 인터뷰를 나가볼까 싶었다!:) 비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계마냥 300인분의 김밥을 싸고, 반구스 조림을 만들고 김치찜을 만들고 허겁지겁 퓨전한복을 입고 전시장에 갔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있었고, 따갈로그어로 대답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는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리포터를 보면서 행복했다. ☺ Showcase를 하면서 다시 한 번 Culture Shock를 겪었지만… 이제는 그려러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단계인가보다!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이지만 작은 변화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 신기한 나날이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축제덕분에 정말 알차게 보낸 4월! Hundred Island를 다녀온 이후로 피부가 정말 많이 타서 새까맣게 되어서 일까? 요즘은 우체국을 가거나 물을 사러 가거나 밖에 나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따갈로그어로 말을 건다. 처음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필리핀 사람인가보다 하며 기다렸으나…… 매번 급습한 따갈로그어에 내 머리 위 한 가득인 물음표를 보고 “Are you foreigner?”이라고 되묻고는 “I think you are Philippino!”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는 필리핀 사람을 보며 내가 필리핀 사람이 다 되어 가고 있구나 싶다. YMCA에 있는 친구들도 “너 정말 필리핀 사람 같아!”라고 하는 걸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다. 아마 여기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리라 믿기에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마 나의 짙은 쌍꺼풀과 곱슬머리가 한 몫 더 더했을 듯하다! ㅋㅋ 밝은 색 옷을 좋아하는 것도 필리핀사람같이 보이는 이유인가보다! 구릿빛 피부에 눈에 튀는 색을 입고있어서~~☺)

이제는 검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나와서 소리 지르거나 놀라지 않고 여유 있게 바퀴벌레 약을 뿌리거나 피해가듯, 필리핀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 가듯, 너무 힘들고 어색하던 손빨래가 내 손에 익어가듯, 어딘가 부딪히거나 아플 때 “ARAY!”라고 따갈로그어로 외치듯이 내 생활에 필리핀이 묻어나는 것을 문뜩 느낄 때면 행복하다.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째라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앞으로 남은, 다시는 오지 않을 3개월을 즐기고 또 즐기며 생활하고 싶다. ☺

RaonAtti

SOLE 솔이

풍성한 4월이었다. 내 마음은 새로운 추억들로 가득 찼지만, 감정적으로는 가난했던 한 달이었다. 한 달 새 무슨 일이 생겨 버린 것 일까. 3월에 모든 것이 새로워 절로 미소 짓던 날들을 지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지루할 만큼 익숙해 져 버린 탓인지 웃는 모습보다는 무표정으로, 오히려 피곤함으로 사람들을 마주했던 일상들이 먼저 떠오른다.

풍성했던 추억들을 떠올려보자면, 'Holyweek'을 맞아 Y식구 전체가 우리와 함께 Hundred Islands로 여행을 떠난 일. 머리 끝까지 짜릿할 정도로 짠 물을 들이마셔도, 등이 새까맣게 타서 피부가 벗겨져도 두 번 다시 없을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연달아 Mommy Julie 댁에서 홈스테이를 한 나날들. 4대가 모여 Anda에서 보낸 여유로운 시간은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떠난 가족여행을 떠올리기에 몹시도 충분했다. 때론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혼자 덩그러이 놓인 기분이 들어 무료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연고 없는 이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졌다.

Green Camp를 이야기해보자면, Camp 안에서 배운 것들보다, Camp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을 울부짖던 날들이 먼저 떠오른다. 불편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되려 서로가 의지했던, 함께 웃었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고.

언제나 그렇듯 고통의 순간도, 아팠던 순간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회자되듯, 지금 내가 지루하게 느끼는 혹은 불편하게 느끼는 이 순간 또한 결국 좋은 기억으로 남길 기도해본다. 최근 들어 '라온아띠'라는 이름이 내 머리를 쥐어흔들고 있다. 나는 과연 '아시아의 좋은 친구'인가.

RaonAtti

SOLE 솔이

사람들과 벽을 두기 싫었다. 거리를 두기 싫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는 더 나를 가꿨고, 때로는 너무 달라서 불편한 것들에 일부러 무던하게 굴었다. 튀고 싶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온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싫었다. 내가 노력하듯 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듯, 결국에 우리가 다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을 때 나는 무엇이 무서워서인지 내 이야기를 꺼내놓고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말문을 닫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옳은 방식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서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 아이러니. 친구가 되려고 이 곳에 왔는데 되려 지금은 나도 잃고 친구도 잃은 기분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한국에서 텅텅 비우고 온 맘, 이 곳에서 잃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We cannot please everybody and that not all people can be our friends. But as long as we do what is right, as long as we do what is good, as long as what make people change for the good or the better and as long as we don't hurt people then we have done what is best for ourselves.'

RaonAtti

TONY 태수

4월. 어느 덧 두 번째 에세이를 쓰고 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이번 달은 시간이 더 빨리지나 간 것 같다. 다음 달은 더 빨리지나가겠지? 이번 한 달은 Pugro와 Dump Site뿐만 아니라 개인 Homestay, Bangus Festival로 인한 Green Camp 참가, 그리고 Bangus Cuisine까지 쉴 틈 없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사람들과 많은 추억도 만들었다. Pugaro에서 나의 축구교실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MJ, Dump Site에서 나에게 혼나고 울었던 Naruto, Homestay 기간 때 만났던 Jeremy의 친척들, Green Camp에서 나를 화나게 했던 담당자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날 특별한 친구가 되어준 Davao 친구들, Bangus Cuisine에서 하나가 되었던 라온아띠 멤버들, 그리고 Y식구들. Green Camp로 인해 더욱 돈독해진 Sir(?) Emer, 또한 그로 인해 만났던 그의 가족들. 4월 달을 정리해보자면 라온아띠 포스터가 떠오른다.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했던. 그것은 바로 '사람'. 결국 난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헤어질 때는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아쉬움과 슬픔만이 남는다. 그렇게 웃고 즐기던 사람에게도, 그렇게 미웠던 사람에게도.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나는 느끼고 있는 것 같다.

RaonAtti

DUMPSITE
덤프사이트

B
b
Bee

RaonAti
friends
of
Asia

PUGARO
푸가로

BANGUS FESTIVAL
GILON GILON/
BANGUS CUISINE SHOWCASE/
GREENCAMP

HOLIDAY
Hundred islands 여행

마지막으로
HOT한
TONY의 사진까지☺

YMCA
Sarap K-food
Taste KOREA
Bangus kimchi jim /Jo lim/ Kimbab
KOREA
Salamat Po!
5월에 만나요 :)